

만담·포크송... 1970년 충장로 추억속으로

9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필름정거장 '충장춘추' '양림살롱' 배우 지정남 특강 유·스퀘어 피아노 5중주

가을이 날마다 깊어가는 가운데 9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오는 27일 찾아온다.

필름정거장 '잇다'는 예술과의 삶과 시간을 만나는 '필름정거장-THE 구월, 충장춘추'를 준비했다. 27일 오후 5시 광주극장.

영화 관람과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필름정거장'이 'THE 구월, 충장춘추' 테마로 충장로 4가 가 가장 빛났던 청춘시대인 1970년을 추억한다.

충장로에서 47년 동안 수제맞춤구두를 만들고 있는 구두장인 임춘찬과 나누는 충장로 만담, 구두장인의 손길을 느껴 볼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구두맞춤 이벤트가 준비됐다. 또, 훗날 가수 강형원, '바위산'과 '직녀에게'로 잘 알려진 가수 김원중과 함께하는 라이브공연도 마련된다.

오후 7시부터 광주극장 상연관에서는 오늘의 영화 '씨시봉'이 상영된다. '씨시봉'은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을 배출한 음악감상실 씨시봉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광주극장 1.5층에서는 영화특수촬영기법을 이용해 영화 '씨시봉'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포토존 '씨시봉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9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7일 광주극장에서는 영화 '씨시봉'(사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씨시봉 포토존'도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추억의 비디오 전시 및 보물 찾기가 진행되는 '비디오 보물섬'과 추억의 비디오 상영관 '필름영화방', 서양화가 '연우'의 작품들과 만화덕후 '순학이'의 수집품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시프로그램 '연우방·순학이방'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극장 1층에서는 소원팔찌와 가죽 태슬을 만들어보는 '핸드메이드 공방'과 '핸드메이드 엽서'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광주 양림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1930 양림살롱'에서는 장소특정형연극, 특강, 전시, 살롱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1930년대 풍 근대 의상과 다양한 소품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그 시대 모단결과 모단보이로 변신, 추억이 담긴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마당극 '권번 꽃다이'의 극작가이자 구수한 사투리의 '말바우야잡'으로 유명한 배우 지정남씨가 특강 '예인들의 꿈터-기생 조합 '권번' 이야기'를 진행한다.(사지도서관 로비 오후 5시 30분) 또 '모단걸 테이블'에서는 1930년대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아트상품을 전시한 '엔틱잡화'전이 열리며 모던한 복과 양장을 비롯해 모자, 장갑, 안경, 머리장식 등 다양한 개화기 풍의 근대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살롱 콘서트에서는 어쿠스틱 기타연주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줄 '푸술', 근대가요의 색다른 편곡을 준비한 '풍각두오', 가을밤의 감성을 울릴 해금연주의 김경민씨, 광주의 대표 어쿠스틱밴드 '센치한버스'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9월의 살롱'은 모단걸테이블, 한희원미술관, 가도빌리, 프랄린하우스, 커피뷰는 집, 이야기배달부동개비, 515카페, 양림 148 등으로 '양림살롱 텀블러'(5000원)를 구매하면 제휴 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최대 3잔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70-4239-5040.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7일 오후 6시15분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한뼘클래식'과 함께한다. '한뼘클래식'은 현악, 관악, 성악, 피아

노 등 여러 분야의 음악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전문예술단체다.

'한뼘'은 연주자와 관객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한다는 뜻을 가졌다.

이번 무대는 피아노 5중주로 꾸며진다. '스케이터즈 왈츠', '지금 이순간', '거위의 꿈', '오즈의 마법사' OST 등 다양한 곡이 펼쳐진다.

또, 응모함에 담긴 명함을 추천해 동산아트홀, 금호아트홀에서 하는 공연 초대권을 증명하는 명함이벤트도 실시한다. 문의 062-360-8431.

담양 대담미술관은 이날 오후 4시 '가을 맛보고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을 앞두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투호놀이, 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현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ICH & Du-하석원'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최호순 큐레이터의 '울림이 있는 미술관'과 김현희 에듀케이터의 일상과 예술이 하나로'를 진행한다. 문의 061-381-00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상블 '뮤(Mu)'

영화의 감동, 클래식으로 다시 한번

내일 광주문화회관 음악회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일곱 명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구성된 멀티 앙상블 '뮤(Mu)'가 영화음악 연주를 들려준다. 뮤는 2010년 창단 이후 영화 음악을 클래식 음악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시네마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이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모두 일곱 명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연주그룹이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화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전석 2만원(학생 50%할인).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c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7.

'시네마 파라디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클래식 기타, 현악 4

중주, 클라리넷, 피아노 7중주 편성으로 영화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수목곡)과 영화 '시네마천국'의 테마 음악을 연주한다. 또 '인생은 아름다워'의 메인 테마곡을 비롯해 '고지전', '만추', '최종병기 활', '도가니', '씨니' 등 한국 영화의 주제곡들도 즐길 수 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화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전석 2만원(학생 50%할인).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c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서울역 '서울로 3017'

광주건축투어 '서울건축비엔날레' 간다

10월14일... 선착순 80명

2017 광주건축문화투어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투어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건축문화투어는 건축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건축 전공학생들의 학구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제출,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돈의문박물관 마을에서

열리는 건축비엔날레 주제전 '공유도시'와 서울역 고가 공원 '서울로 3017',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건축비엔날레 도시전을 관람한다.

선착순으로 80명을 모집(10월 10일 까지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하며 참가비는 3만원(입장료·식사 포함)이다. 오전 6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하며 참가비 입금 후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메일(gjkira@empal.com)이나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문의 062-521-00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대표 농악팀 민속예술축제 수상

'지산농악회' 국무총리상·'대촌중' 은상

광주 지산농악보존회(대표 정영율)가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대촌중학교 농악팀은 제24회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과 지도자상(이정석 교사)을 받았다.

광주문화원연합회(회장 성현철)는 21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김해시 수릉원에서 열린 전국 민속경연대회대회에 각각 광주 대

표로 출전한 두팀이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20개 시·도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58년 시작됐다. /김미은기자 mekim@



지산농악보존회의 '광주지산농악'.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